여야, 국회 정상화 의견 접근…막판 진통

이인영, 패스트트랙 강행 '유감' 전달…오신환 "일정 가시권"

나경원 "민주당이 해법 내놔야"…정개·사개특위 연장 반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가 21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밑 의견접근을 이뤄가고 있다.

전날 원내대표 간 '맥주 회동'으로 공식 대화 채널을 복원한 여야가 모처럼 적극적으로 협상을 벌이고 있어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날 밤 '호프'(Hof) 모임을 계기로 일하는 국회의 '호프'(Hope·희망)를 만들어보자고 의기투합한 민주당 이인영·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각자 회의에서 국회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이 국회를 보고 느끼는 답답함을 해소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국민을 위해 더 많은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의 방식에 연연하지 않고 정치적 돌파구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저부터 역지사지의 자세로 야당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야당 원내대표들이 통 크게 결단해달라"고 호소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번 주말이 지나면 국회 정상화 일정이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야당 원내대표들에게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이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사실상 사과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한국당에 국회 복귀의 '명분'을 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야의 최종 협상 타결까지는 '냉각기'가 더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단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민생투쟁 대장정'이 오는 24일까지 계속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를 염두에 둔 듯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전날 맥주 회동 등에 관해 일체 언급을 삼가고, 정부·여당의 주요 정책을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한국당은 물밑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에 대한 사과뿐 아니라 다음 달말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선거법 개정안 등에 대해 여야 합의 처리가 전제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정개특위·사개특위가 이제 그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개특위에서는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사개특위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각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상태다.

이와 관련, 오신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전날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두 특위의 기간 연장 문제가 논의됐다고 소개하고 "연장 문제를 갖고 밀고 당기며 다른 문제까지 해결하지 못할 바에는 각 상임위로 보내 패스트트랙 취지에 맞게 끔 협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3당 교섭단체 협상에서 소외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연합뉴스

고립된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오른쪽)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있다. 이날 회의에서 채 정책위의장은 바른정당계가 주축이 된 원내지도부로부터 '융단 폭격'을 받았다. /연합뉴스

황교안 "내가 왜 독재자 후예냐"…이해찬 "적반하장격"

민주·한국, 불붙은 '독재자' 논쟁…양당 대표가 직접 격돌

정치권에서 '독재자' 논쟁이 불붙고 있다.

포문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열었다. 한국당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현 여권과 첨예하게 대치하는 과정에서 '독재 타도'를 구호로 내세웠다. 현 여권을 '독재세력'으로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5·18 민주화운동 39주년을 기점으로 상황은 반전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 기념사를 통해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5·18 망언 당사자가 속한 한국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사흘이 지난 21일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독재자 논쟁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끌어들이는 '좌파 프레임'을 걸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앞에서 한 연설에서 "이 정부가 저희를 독재자의 후예라고 하는데 진짜 독재자의 후예는 김정은 아닌가. 세습 독재자이고, 세계에서 가장 악한 독재자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니까 여기서도 (김정은의) 대변인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제가 왜 독재자의 후예인가"라며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러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직접 반격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대운동장에서 열린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체육대회에 참석, "한국당이 우리를 보고 독재세력이라고 적반하장격으로 말하고 있다"며 황 대표의 발언을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이제 우리가 역사의 주체가 돼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한다"며 "민주당 없이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굳건하게 발전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민주, '목포-봉하 민주주의의 길' 출정식

이해찬 "우리 정부가 지역 숙원사업 예타 면제"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전 여의도 당사 앞에서 '목포에서 봉하까지 민주주의의 길 출정식'을 열었다.

'민주주의의 길'은 이날부터 2박3일간 올해로 서거 10주기를 맞은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활터전을 찾아 추모하는 행사로, 민주당 정년 권리당원 1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출정식에서 "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을 돌아보면서 두 분의 살아온 정치적 삶을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며 "슬픈 현대사, 보람찬 현대사를 잘 둘러보시고 현대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좋은 대장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서남해안은 그동안 개발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보고이다"면서 "하의도에서 쭉 걷다보면 목포, 여수, 순천 등 서남해안이 아주 아름다운 보고인데 지역의 숙원사업인 예타 면제를 해서 그 지역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사무총장도 "두 분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로 가는 길,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길을 개척한 분들이고 민주당의 길을 만들어낸 분들"이라며 "두 분의 삶 속에서 고난과 역정, 두 분이 사셨던 헌신과 희생의 정신을 듬뿍 느끼는 여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지자체 공금 결제 때 제로페이도 허용

앞으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결제할 때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와 직불카드의 사용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5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자체의 공금 결제 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카드 외에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제로페이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없고 직불카드(0.5-1.1%, 연 매출 8억원 이하 기준)는 신용카드(0.8-1.4%)보다 수수료율이 낮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 활성화를 위해 수출입은행에 별도의 특별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를 통해 거래 상대국의 위험이 높아 기존에 금융 지원이 곤란했던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가능하게 해줄 계획이다.

개정안은 특별계정의 재원은 정부 출자금과 이익금 등으로 하고, 수출입은행과 그 임직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이 특별계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전기사업자 등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력산업기반기금 용도에 관련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김경진 "EBS 광주지역 입시설명회 개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북갑)은 오는 25일 오후 2시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 다산홀에서 '2019년 EBS 광주 지역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광주교육정보원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입시설명회는 고3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타 지역에 비해 입시 관련 정보가 부족한 광주·전남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번 입시설명회가 광주전남 지역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EBS 입시설명회는 현장 참석자에 한해 EBS 입시 자료집 제공 및 질의응답을 통한 맞춤형 입시 전략을 제공한다. 현장 강연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부모와 학생을 위해서는 강연 녹화분이 EBSi(www.ebsi.co.kr)에 등록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수도권에 비해 입시정보가 부족한 광주·전남 지역을 위해 광주교육청, EBS와 함께 올해에는 총 4번의 EBS 입시설명회를 추진 중에 있고, 이번이 그 두 번째"라며 "EBS를 대표하는 최고 스타 강사들이 특강을 맡은 만큼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님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